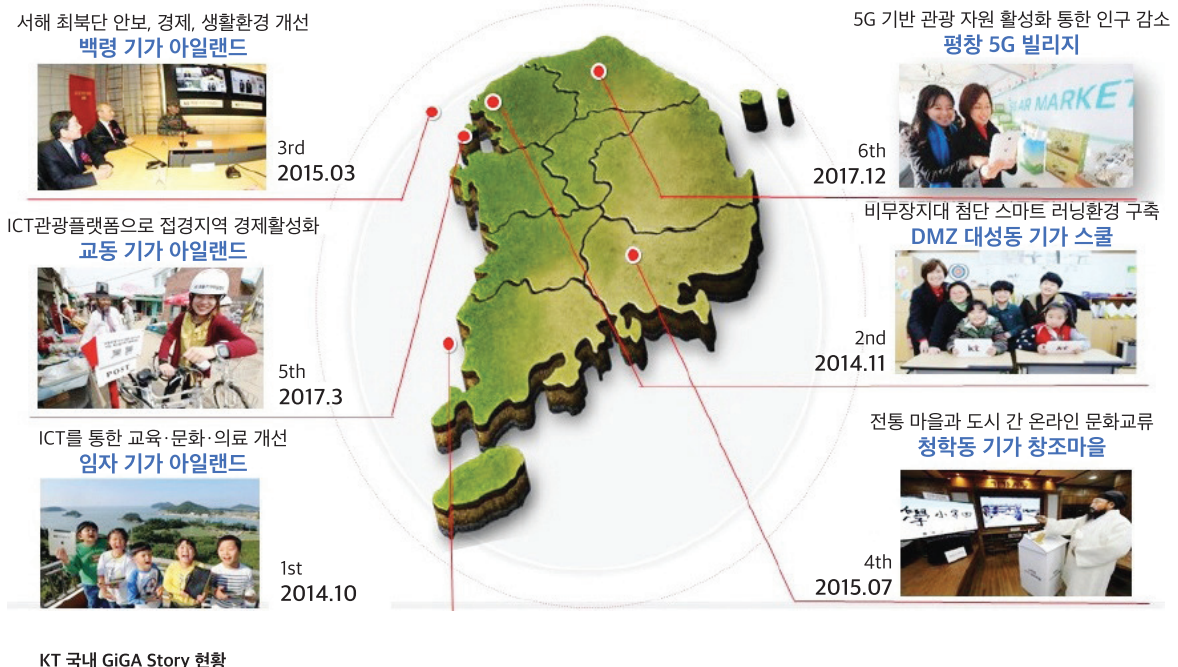


KT그룹 글로벌 기가스토리

글. KT스카이라이프 커뮤니케이션팀

KT그룹 임직원 해외 봉사활동은 지역 활성화 및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해 KT의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가치를 실천하는 기가스토리(GiGA Story)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ICT를 통한 교육·문화·의료개선을 목적으로 진행한 1차 ‘임자 기가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비무장지대 스마트러닝을 위한 ‘DMZ 대성동 기가스쿨’, 서해 최북단 안보·경제·생활환경을 개선한 ‘백령 기가 아일랜드’, 전통마을과 도시 간 온라인 문화교류를 꾀한 ‘청학동 기가 창조마을’, ICT 관광 플랫폼으로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룬 ‘교동 기가 아일랜드’, 5G 기반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한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평창 5G 빌리지’까지 지금까지 맞춤형 지역 기반 다양성을 추구해오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해외 CSV 추진 국가를 대상으로 KT그룹 연합 차원의 봉사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2017년에는 방글라데시 모헤시 칼리섬으로 해외봉사단을 파견하였고, 이듬해에는 캄보디아 수혜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작년에는 네팔의 높아져 가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 솔루션과 낙후된 교육,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네팔의 선정 배경은 수년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2018년 기준 100만 명 초과) 트레킹 비율 또한 동반 상승하여 10% 정도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른 히말라야 산악 조난 등 사망사고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이래 총 사망자 수가 170여 명에 달하며 원인으로는 눈사태가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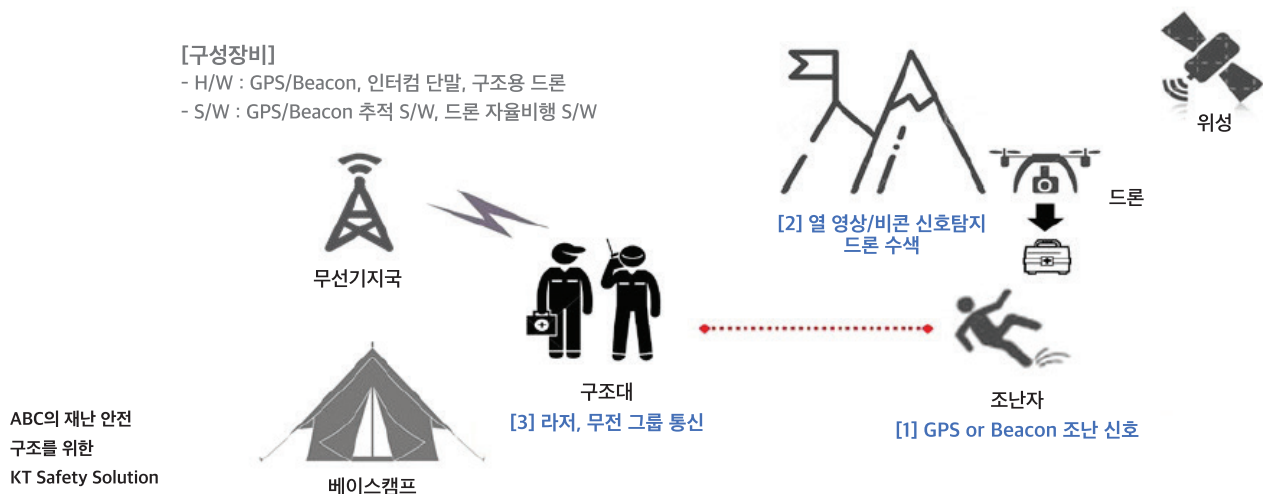


KT 윤종진 홍보실장, 간다키주 프리씨비 숭바 구릉주지사,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상임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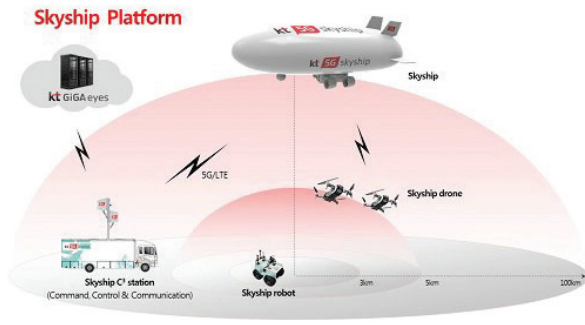
빈번하였으며 추락, 고산병, 실종 등이 뒤를 따랐다. 이렇다 할 긴급 구조체계가 없는 네팔 정부로서는 부상자 후송이 전적으로 민간 헬기회사에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물론 사망자 중에는 외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의 산악인이 포함되어 있다. 1947년 이래 히말라야 한국인 사망자는 확인된 수만 90명이 넘으며, 지난 2011년에는 박영석 대장 외 2명이 실종되었고, 최근 2018년에는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 했던 김창호 대장 외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자국민을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에서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통신기업인 KT는 포카라에서 네팔 정부 관계자, 국내 재단과 함께 ‘안나푸르나 재난긴급대응센터 설립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협약식에는 네팔 간다키 지방정부 프리씨비 숭바 구릉 주지사, 엄홍길휴먼재단의 엄홍길 상임이사, KT 홍보실장 윤종진 부사장이 참석하여 네팔 안나푸르나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재난긴급대응센터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KT는 대상 지역에 본격적인 ICT 솔루션을 구축하기에 앞서 포카라 ABC(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코스에 대한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현장조사 하였다. 포카라는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도시로, 히말라야 등산과 트레킹을 시작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재난 대응 솔루션과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는 엄홍길 휴먼재단이 맡고 네팔 주 정부는 산악구조대를 설립하는 등 기타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로 협약하였다. 히말라야 중부의 안나푸르나를 방문하는 연간 10만 명 이상의 산악인과 엄홍길휴먼재단이 설립한 희망스쿨의 학생들이 그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ABC의 재난 안전을 위해 Detection, Searching, Rescue 3단계가 추진되었다. Detection은 조난 또는 실종 발생 시 GPS나 Beacon을 활용한 조난자 위치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드론을 이용한 Searching 단계는 재해재난 구난용 열감지 영상을 탐지 후 조난자 위치를 탐색하여 서바이벌 키트와 같은 구급 물품을 낙하하여 생명 연장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Rescue는 재해재난 구조대 출동하는 본격적인 구조단계로 통신 단절 상황 시에도 구조대 KT 파워텔 그룹 통신과 인터컴 통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ABC Safety



Broad Sharing



조난 시 구조부터 원격진료까지 가능한 KT Skyship Platform



Skyship C3(Command, Control&Communication) Station

Solution의 컨셉은 국내에서 이미 KT가 구축한 ‘Skyship Platform’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18년부터 운영하는 이 플랫폼은 자국민의 조난 상황을 대비하여 무인 비행선 스캔 → 드론으로 상세위치 파악 → 구조 물품 전달 → 구급대원 도착 및 원격진료라는 구조부터 응급처치 단계까지 포함된 포괄적 솔루션이다.

Skyship 플랫폼은 Skyship, Skyship C3(Command, Control&Communication) Station을 중심으로 세부 임무 수행을 위한 Skyship drone, Skyship robot으로 구성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LTE나 5G 상용 통신망을 이용하기에

안정적으로 상세한 위치 파악(반경 50m 이내)이 가능하다. 또한 드론이 출동하여 최종 위치를 탐색하게 되면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지상에서는 스카이십 로봇이 출동하여 구조 물품을 전달하고 탑재된 카메라와 통신 기능을 통해 구조센터에 현장 중계 및 응급조치 등의 초동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AR 글래스를 활용한 원격진료는 ICT와 의료강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실제로 시연현장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구급대원이 착용한 AR 글래스를 통해 조난자 상태와 현장 상황이 KT망을 거쳐 아주대학교의료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로 중계되었다. 그러면 아주대 이국종 교수는 전송된 정보



임홍길 재단이 운영하는 नेपाल의 16개 휴먼스쿨

를 바탕으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구급대원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아직은 의료법상 조난자의 병력, 혈액형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지만, 향후 법이 개정된다면 휴대폰 신호를 해당 통신사의 데이터와 연결해 이름과 나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하여 더욱더 빠르고 정확한 응급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휴먼스쿨 교육 커리큘럼의 경우에는 신기술 인재육성을 위해 드론 클래스를 운영하여 드론 관련 HW/SW 교육과 드론 운영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지학교 원격교육 측면에서는 스마트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구축하여 전자칠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NW 기반 원격교육 환경으로 탈바꿈을 꾀하고 있다. 이미 KT Education 솔루션으로 현지 학교의 PC 교육장이 증축되고 광케이블이 포설되어 인터넷이 공급되었다. 끝으로 의료 솔루션으로는 모바일 의료기기를 통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음파, 혈압, 혈액, 혈당측정 기기가 제공되었으며 목띠나트와 마냥 오지 지역의 의사를 대상으로 트레이닝을 실시하였다.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를 등반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재단을 설립하고 지난 2009년부터 네팔지역에 16개의 학교를 운영 중이며, 이번 글로벌 기가스토리의 최종 목적지이기도 한 4번째와 7번째 휴먼스쿨이 각각 비레탄티와 따또바니에 있다. 얼마 전에는 이곳으로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총 18명(그룹사 11명, KT 4명, 재단 2명, NGO 1명)이 다녀왔으며 스카이라이프도 그룹사를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그럼 지금부터 높디높은 산악지형으로 척박하고 위험하지만 아름답고 매혹적인 땅, 네팔의 생생한 봉사활동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도착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KT그룹 임직원 봉사단은 창의조와 문화조로 나뉘어 각각 주제에 맞는 커리큘럼을 진행하였다. 창의조는 3D pen, 컬러링 AR, LED 손전등, 핸드선풍기를 교육하였고, 문화조는 전통 부채·연 만들기, 팽이·한지 벽걸이와 모기 퇴치 석고 팔찌 만들기를 학생들과 함께하였다. 또한 전원이 참가한 야외행사는 전통놀이(제기·팽이·연) 및 미니올림픽(단체줄넘기·2인 3각 달리기)과 카드뒤집기, 인간 띠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KT는 CSR을 넘어 진정성 있고 지속가능한 CSV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



4th 휴먼스쿨 비레탄티의 청아한 하늘 풍경



7th 휴먼스쿨 따또바니의 청아한 하늘 풍경



창의조의 LED 손전등 만들기 체험학습



미니올림픽 단체줄넘기



미니올림픽 2인3각 달리기 대회



KT그룹 임직원 봉사단 비레탄티 휴먼스쿨



문화조의 전통 연 만들기과 날리기 체험학습